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오만

### Sultanate of Oman

2021년 6월 22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10천 km <sup>2</sup> (한반도의 1.4배)	<b>인구</b> 4.4백만명 (2020 <sup>e</sup> )	<b>정치체제</b> 세습군주제	<b>대외정책</b> 중립외교
<b>GDP</b> 632억 달러 (2020 <sup>e</sup> )	<b>1인당GDP</b> 14,216 달러	<b>통화단위</b> Omani Rial	<b>환율(U\$기준)</b> 0.39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북동쪽으로는 오만 만, 동쪽과 남쪽으로는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와 접경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랍 제국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0년 1월 왕위에 오른 하이삼 국왕은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왕족의 공개적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고, 왕위계승 1년 만인 2021년 1월 장남 드히 야잔을 조기에 왕세자로 임명하며 권력을 공고히 함.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채 통합, 부가가치세 도입, 보조금 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3. 28 수교 (북한과는 1992. 5. 25)

**주요협정** 항공협정('83), 문화협정('94), 투자보장협정('03), 이중과세방지협정('05), 외교관,사증면제협정('14)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674,885	643,228	612,765	석유화학 합성원료, 열연강판, 승용차 등
수 입	2,775,072	2,675,102	2,176,821	천연가스, 원유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 말 누계)** 59건, 795,454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4.9	0.3	0.9	-0.8	-6.4
소비자물가상승률	1.1	1.6	0.9	0.1	-0.9
재정수지/GDP	-21.0	-12.6	-8.3	-6.7	-17.3

자료: IMF, EIU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4%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

- 오만 GDP의 30%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부문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국제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과 OPEC+의 석유 생산량 감산 합의에 따른 오만의 감산 이행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음. 또한 관광, 숙박 등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로 오만 경제는 2020년 -6.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오만의 2020년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함.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최대 생산량인 하루 평균 110만 배럴을 생산하다 OPEC+ 감산 이행 조치로 5월에는 하루 평균 85만 배럴로 감산한 바 있으며, 12월 말 기준 하루 평균 95만 배럴을 생산함.

### 2021년에는 소폭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

- 백신 보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국내외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추세, 61광구를 구성하는 가지르(Ghazeer) 가스전 시추 본격화, OPEC+의 감산조치 완화 전망 등에 근거하여 오만은 2021년 플러스 경제성장률 회복이 기대됨. 다만,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지출과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도입이 민간소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성장률 회복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기관별 오만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IMF 1.8%, IHS Markit 3.0%, S&P 1.3%, EIU 1.9%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충격으로 디플레이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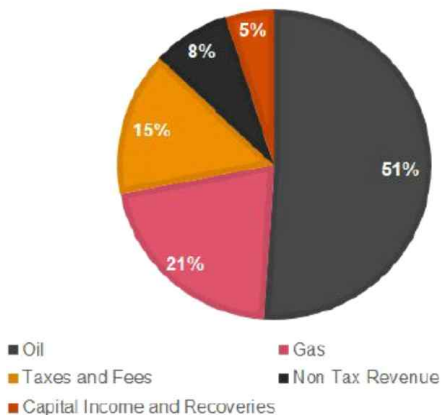
- 오만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2020년 -0.9%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함. 한편, 2021년에는 식료품 국제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5% 세율의 부가가치세 도입, 전력 보조금 축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EIU는 1.9%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IHS Markit은 -0.2%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

###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 에너지 산업 부진과 코로나19 대응책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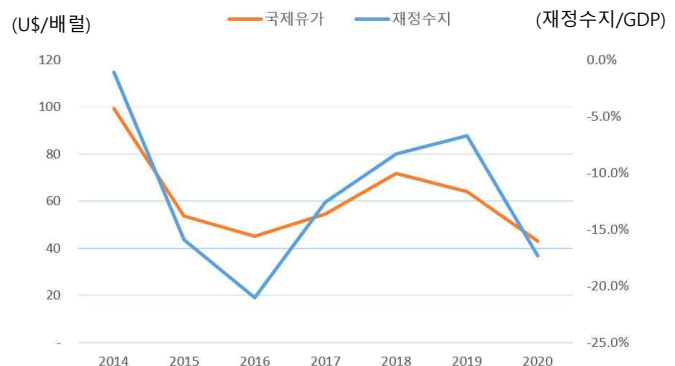
- 오만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성장을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정수입의 약 72%를 석유(51%) 및 가스(21%) 부문이 차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8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 패키지 등의 재정정책에도 예산 감축 조치와 선별적인 프로젝트 투자 단행 등을 통한 재정지출 최소화 노력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 감소함. 반면, 에너지 산업 부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봉쇄조치(lockdown) 및 관광세·지자체세 면세, 세금 징수 유예 등 직·간접적인 재정지원 정책 제공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여 GDP 대비 -17.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오만은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며,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기록한 2015~17년에는 GDP 대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 등 재정수지가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2020 REVENUE ESTIMATES



자료: PWC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및 재정수지 추이



자료: IMF, 한국석유공사

### 2021년에도 보수적인 유가 전망 하에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될 전망

- 오만의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24억 달러를,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28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21년 예상 GDP의 8% 수준인 58억 달러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됨. 금번 예산안 추산시 사용된 유가 수준은 배럴당 45달러로 수익과 지출 전망 모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편성됨.

※ 2020년 예산안: 배럴당 58달러에 기반하여 추정

- 2021년 추산 재정수입에서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 및 22% 수준이며, 석유 부문 수입은 전년 대비 19% 감소, 가스 부문 수입은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 및 재정수지 개선 가능성이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12,539	-10,981	-4,289	-4,140	-10,212
경상수지/GDP	-19.2	-15.6	-5.4	-5.4	-16.2
상 품 수 지	6,258	8,764	18,085	18,229	9,433
상 품 수 출	27,544	32,886	41,730	38,686	25,827
상 품 수 입	21,287	24,121	23,645	20,457	16,394
외 환 보 유 액	19,931	15,835	17,141	16,374	14,676
총 외 채	44,410	55,473	63,893	70,554	75,711
총외채잔액/GDP	67.8	78.6	80.1	92.4	119.8
D.S.R.	13.5	13.8	15.9	14.9	24.9

자료: IMF, EIU

###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수출 감소로 2020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기록

- 2019년 기준 석유 및 가스가 오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4% 수준임. 2020년 오만의 주요 석유 수출상대국인 중국(총 석유 수출의 78.4%)을 포함한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도의 3배인 -16.2%를 기록함.

### 2021년 국제유가 상승, 외국인 노동자 감소의 영향 등으로 경상수지 개선 전망

- 2021년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국제수요 증가 등으로 석유·가스 수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한 상품수입 감소는 오만의 상품수지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됨.
- IHS Markit은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인 오마니제이션(Omanization) 확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으로 2020년 중 2019년 총인구의 6%에 해당하는 약 2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빠져 나갔다고 밝힘. 이로 인해 2021년에는 상품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2021~22년 기간 동안 GDP 대비 평균 26%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한 해외 송금액 감소\*는 이전소득수지 적자 폭을 감소시켜 2021년 오만의 경상수지 개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액은 GDP의 12%에 달함.

※ 주요 기관의 2021년 경상수지 전망(GDP 대비): IMF -6.4%, IHS Markit +0.4%, S&P -5.4%

## 외채상환능력

### 경상·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외채부담 가중

- **[2020년]** 오만은 지속된 경상·재정수지 적자의 보전을 해외차입에 주로 의존하여 외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6년 67.8%에서 2020년 119.8%로 크게 상승함.
  -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69.5억 달러 수준이나, 에너지 산업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로 D.S.R.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24.9%로 상승함.
  - 그러나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6개월 수준인 점, 총외채의 34% 수준인 26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점, 유사시 GCC 회원국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만의 외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에도 58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24억 달러 규모의 해외차입이 계획되어 있어 외채부담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 2021년 재정적자 충당 계획(비중) : 해외차입 42%, 국내차입 31%, 예비금 인출 27%
- 오만은 2021년 1월 국채 발행을 통해 32.5억 달러를 조달하는 등 올 1분기 중 금융시장을 통해 총 54.5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확인됨.

## 구조적취약성

### 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며, 주요 GCC 국가 대비 짧은 지하자원 가채 연수

- 석유 및 가스 부문이 총수출의 68%, 재정수입의 72%, GDP의 30%를 차지하는 오만 경제는 원자재 국제 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오만은 국제유가 하락이 시작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고, 2015년부터 경상수지 적자도 기록하며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등 국가경제가 원유시장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오만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0.3% 수준이며, 가채 연수\*는 15년에 불과함.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역시 전 세계 매장량의 0.3% 수준으로 가채 연수는 18년 수준임.

\* 자원의 확인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주요 GCC 국가 원유·천연가스 현황

구 분	원유		천연가스	
	비중 <sup>1)</sup>	가채연수	비중 <sup>1)</sup>	가채연수
오만	0.3%	15년	0.3%	18년
사우디아라비아	17.2%	69년	3.0%	53년
아랍에미리트	5.6%	67년	3.0%	95년
쿠웨이트	5.9%	93년	0.9%	92년
카타르	1.5%	37년	12.4%	139년

1) 세계 매장량 대비 해당국의 확인 매장량 비중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 한편, IMF는 2021년 오만의 균형재정 유가\*가 배럴당 109.5달러로 GCC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함. 오만의 상대적으로 열위한 석유·가스자원 경제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구조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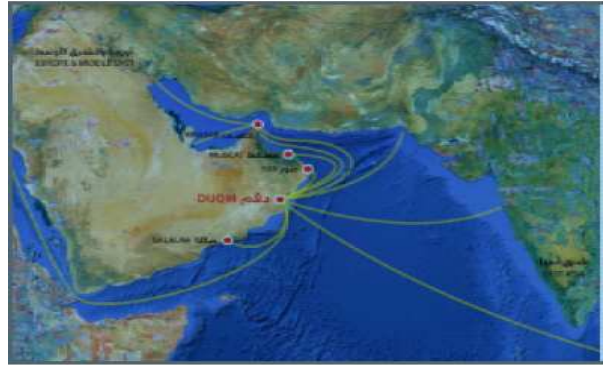
\*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

※ 2021년 GCC 국가들의 균형재정 유가(달러/배럴) : 사우디아라비아 67.9, 아랍에미리트 66.5, 쿠웨이트 65.7, 카타르 38.1, 바레인 83.4

## 성장잠재력

###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 중심지로의 성장 가능성

- 오만은 중립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는 파키스탄, 인도, 이란 등과 면해 있음. 그 외에 유럽, 아프리카로도 수출이 용이하여 물류 중심지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GCC 국가 내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항만 등 대형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 중임.



자료: KOTRA

###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여건 조성

- 오만은 중립 외교를 기반으로 한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낮은 테러 위험, 고정환율제 유지 등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여건 하에 2016~19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을 기록함.
- 오만은 외국인투자 확대, 기술 유치 목적 등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율 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 내에서만 시행되던 외국인 지분율 100% 허용 조항을 2020년 1월부로 폐지하였고, 자국민 최저임금 수준 하향 조정\*, 외국인 노동자 이직 제한 완화 등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 교육 수준(고졸/대졸/석·박사)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최저임금을 고졸 수준으로 통일함.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오만은 테러 안정성 부문에서 1위에 올랐으며(141개국 대상), 종합적인 치안 수준은 6위를 기록함.
- 또한,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가 변동에도 안정적인 환율을 보장하고 있음.

### 주요 GCC 국가 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오만	-2,172	2,265	2,918	4,191	3,125
카타르	1,071	774	986	-2,186	-2,813
사우디아라비아	8,141	7,453	1,419	4,247	4,562
아랍에미리트	8,551	9,605	10,354	10,385	13,787
쿠웨이트	311	419	348	204	104

자료: UNCTAD



## 성장잠재력

### 글로벌경쟁력지수는 GCC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9년 오만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는 53위(전년 대비 6계단 하락, 총 141개국 대상)로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순위가 하락함.

※ GCC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등락폭) : 아랍에미리트(25위, ↑2), 카타르(29위, ↑1), 사우디아라비아(36위, ↑3), 바레인(45위, ↑5), 쿠웨이트(46위, ↑8)

- 세부적으로는 양호한 육상 및 해상 수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28위를, 교역 개방성 등을 고려한 상품시장 부문에서 26위를 기록하였으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1위) 유지에도 불구하고 부채 부담으로 인해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19위를 받았으며, 노동시장(97위), 시장규모(62위) 등에 대한 분야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로 남아 있음.

## 정책성과

### 부가가치세(VAT)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

- 오만은 2021년 1월 1일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5년)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2025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2021년 4월 16일부터 GCC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세율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 재정수입의 4.8% 수준인 10.7억 달러 규모의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GCC 회원국은 2016년 6월 세율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18.1월), 바레인('19.1월)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고, 카타르 역시 올 3분기 중 부가가치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 현재 오만은 2019년 6월부터 담배, 술, 돼지고기, 에너지드링크에 세율 100%, 탄산음료에 세율 50%의 내국 소비세(Excise Tax)를 도입 중이고 2022년까지 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으며, 그 외에 수도·전기 등에 대한 보조금 개혁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부처 통합 등을 통한 정책 효율성 개선 추구

- World Bank는 공공·공무원 서비스, 정책 수립과 이행 및 이러한 자질을 높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4개 국가에 대해 정책 효율성 지수를 표준 정규분포[-2.5(Bad)~2.5(Good)] 형태로 매년 산출하고 있음. 오만은 2017년 0.2점, 2018년 0.2점, 2019년 0.3점을 부여받아 글로벌 평균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나, GCC 국가들 중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함.

※ GCC 국가(2019년 기준): 아랍에미리트 1.4, 카타르 0.7,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오만 0.3, 쿠웨이트 0.0점

- 오만은 정부 조직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규모 조직 개편 단행을 통해 유사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여 기존 26개 정부 부처를 19개로 축소하였으며,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함. 그 외에 기존에 국왕이 겸직하던 재무 및 내무장관직, 중앙은행 총재직에 독립된 인사를 임명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정책성과

### 장기 경제개발계획(Vision 2040)을 통한 경제 다각화, 고용문제 해결 추진

- 오만 정부는 2021~40년 기간 동안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40 수립을 통해 제조업, 교통 및 물류업, 수산업, 광업, 관광업에 역점을 두어 경제 다각화 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인 오마니제이션(Omanization)을 통해 자국민 고용 증대 및 실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 Vision 2040은 2040년까지 비석유 부문이 GDP의 93%를 기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석유 화학, 의료기기, 제약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함.

## 정치안정

### 하이삼 국왕은 왕위계승 1년 만에 장남 드히 야잔을 왕세자로 임명하며 권력을 공고히 함

- 오만은 국왕 중심의 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입법·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
- 선왕인 카부스 국왕이 직접 후계자로 지명하여 2020년 1월 왕위에 오른 하이삼 국왕은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왕족의 공개적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왕위 계승 1년 만인 2021년 1월 장남 드히 야잔을 조기에 왕세자로 임명하며 권력을 공고히 함. IHS Markit은 이러한 정치 환경과 최근의 왕위계승 공고화 조치 등으로 오만의 체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분석하며 2021년 오만의 체제 안정성 지수\*를 전년 대비 0.1점 개선된 1.8점을 부여함.

\*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며, 0에 가까울수록 체제 안정성이 높음

## 사회안정

###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의 소수 온건 종파인 이바디파로 사회 안정 유지

- 오만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의 소수 종파인 이바디파 무슬림임. 이바디파는 신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함에 따라 수니파와 시아파에 비해 온건한 종파로 평가됨. 또한, 비교적 타 종교에 관용적인 입장이며, 오만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일하는 비무슬림 외국인들을 위한 종교시설(가톨릭 성당, 불교 사찰, 힌두교 사원 등)의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온건 성향의 이바디파가 다수인 관계로 종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적어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오만은 수니파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과 시아파 국가들(이란, 이라크 등) 간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

### 경기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긴축 재정정책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증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에도 오만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삭감, 각종 세금 도입 등의 정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IHS Markit은 국민의 불만이 소규모 시위 형태로 표출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사회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함.
- IHS Markit에 따르면 오만의 실업률은 16.9%로 높은 편이며, 청년층에 국한하는 경우 48.7%에 이른다고 밝힘. 오만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인 오마니제이션(Omanization)을 시행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민간 부문의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단기간 내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EIU는 경제 개혁 및 실업 문제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2023년 무렵에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사회안정

### 2020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한 49위를 기록

-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오만은 54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함.

※ GCC 국가 부패인식지수: 아랍에미리트(71점, 21위), 카타르(63점, 30위), 사우디아라비아(53점, 52위), 쿠웨이트·바레인(42점, 78위)

### Moody's는 오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오만이 중간 수준의 부정적인 사회 위험과 적절한 제도 및 지배구조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인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ESG 요소가 오만의 현재 등급에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경제·재정 의존도로 탈탄소 정책과 관련한 환경 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성장, 인구 증가 등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매우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함.
- **(사회)** 현재 및 향후 수십 년 동안 예상되는 급속한 인구 및 노동력 증가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도의 고용에 대한 자국민의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분야라고 지적함. 실업률을 통제하기 위한 자국민 고용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정책 과제이자 사회 위험을 변화시킬 중요한 동인이라고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상대적으로 약한 재정정책의 효과성, 비우호적인 사회 및 환경 변화 추이와 사회 및 환경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주권 능력의 한계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 국제관계

### 친서방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협력 강화

- 오만은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랍 제국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서방과의 군사협력 조약 또는 협정: 영국(1951년), 미국(1980년), 프랑스(1989년)
- 특히, 미국은 오만과 FTA 협약(2005년 10월)을 체결한 최초의 비아랍 국가로 친밀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오만 내 군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군사협정(1980년 6월)을 맺는 등 미국과의 군사 안보협력은 오만 방위력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음.
- 한편, 오만은 주요 석유 수출상대국인 중국(총 석유 수출의 78.4%)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에너지 공급, 물류망 거점의 하나로 오만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경제협력을 확대 중이며, 2018년 오만과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중국 투자회사 컨소시엄인 Oman Wanfang은 오만 정부가 지정한 두름 경제특구 산업단지 건설에 107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함.
- EIU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오만이 양국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유사시에 오만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함.

### 중립 외교정책이 위협받을 가능성 존재

- 오만은 이란 핵합의(JCPOA)를 둘러싼 미-이란 갈등, 예멘 내전에 개입하며 대립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 갈등, 카타르와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 간의 단교 사태\* 등 각종 외교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지속된 재정 악화로 GCC 국가들 앞 재정 지원 요청 시 해당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동맹을 요구받는 경우 중립 외교정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오만은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4개국과 카타르 간의 외교관계 복원으로 쿠웨이트와 함께 그간의 중재 노력을 높게 평가받음.

### 인접국인 예멘의 내전 장기화는 오만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예멘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진영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충돌이 지속되며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는 예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오만의 국가안보 및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앞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0년 12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지원 잔액은 111.3억 달러(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109.7억 달러)로 이 중 정치적 리스크에 의한 연체금 잔액이 없고, 채무재조정 이력도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20년 직전 등급 포함)	
OECD	6등급(2021.01)	5등급(2020.01)	4등급(2019.01)
Moody's	Ba3 (2020.06)	Ba2 (2020.03)	Ba1 (2019.03)
Fitch	BB- (2020.08)	BB (2020.03)	BB+ (2018.12)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오만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

- 오만의 높은 에너지 산업 의존도, 재정·경상수지 적자 심화, 공적 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OECD는 2020년 국가등급을 1계단 하향 조정하였으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오만의 국가신용등급을 2020년 중 두 번에 걸쳐 하향 조정함. 2021년 평가일 현재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모두 오만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GDP 대비(%): '17년 46.4 → '18년 53.2 → '19년 63.1 → '20년 81.5

- 오만은 석유 및 가스 부문이 총수출의 68%, 재정수입의 72%, GDP의 3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제·재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주요 GCC 국가 대비 지하자원 가채 연수가 짧아 경제 다각화가 시급함.
-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큰 폭의 쌍둥이 적자 및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당면 과제로 남아 있음.
- 쌍둥이 적자 보전을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외채부담이 지속 가중되고 있으나 26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유사시 주변 GCC 국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외채상환능력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높은 에너지 산업 의존도, 재정·경상수지 적자 심화, 공적 채무 등 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2020년 중 오만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제히 1~2계단 하향 조정함.